

제9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 개최

|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대리 | 이상설 |

미 래 전장환경에 부응하고 항공우주 무기체계에 대한 범 국민적 중요성 인식과 군/산/학/연간 상호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제9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63빌딩에서 개최되었다.

85년 전자전 전술토의 이래로 97년 전자전/모의훈련 세미나 및 전시회로 확대된 이 행사는 금년으로 제8회를 맞이하였으며, 작년부터 공군 창군 50주년을 기념하여 유사 세미나와 통합 개최된 이 행사의 항공전략 분야는 공군사관학교, 공군교리 분야 및 무기체계 분야는 전투발전단에서 담당하였다. 또한 최신 무기체계의 정보와 기술교류를 위해 선진 해외 업체에서 세미나 및 전시에 참가하여 자사의 제품 및 기술을 소개하였다.

10월 11일 63빌딩 2층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이억수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와 우리 협회 회장의 환영사,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사 및 서정목 과학기술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있었다.

총 3개 분과로 나누어져 개최된 세미나의 경우 제1분과 항공우주 심포지엄은 10월 11일 2층 국제회의장에서, 제2분과 교리발전 세미나는 10월 12일 3층 엘리제홀에서 개최되었으며, 제3분과인 항공우주 무기체계 세미나는 3층 코스모스

홀에서 10월11일 ~ 13일까지 개최 되었다. 10개 업체, 17개 기관에서 총 34편이 발표 되었으며, 각 분과별 세미나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.

항공우주 심포지엄 (제1분과) /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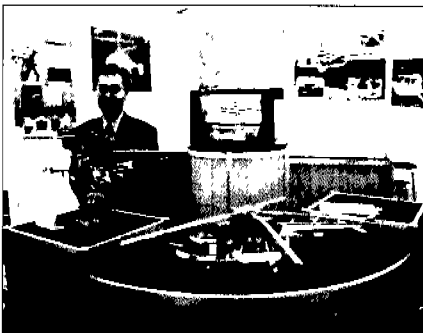
- 전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항공우주력의 발전방향 (이성만, 공군사관학교 교수)
- MOOTW와 21세기 공군의 새 역할 (스스모 다카이, 일본 방위연구소 교수)
-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핵심 기술 (윤용현, 공군사관학교 교수)
- 국가방위와 공군운용에 있어서 딜레마 (도미타로 요네다, 일본 중앙대학 교수)
- 21세기 항공우주산업 전망과 항공우주정책 (백영훈, 한국산업개발원장)

교리발전 세미나 (제2분과)

- 군사혁신 추이와 우리군의 군사혁신 (노 훈, 국방연구원 전략발전부장)
- 군사혁신을 통한 육군의 발전방향 (장명순, 국방연구원)
- 군사혁신을 통한 해군의 발전방향 (김현수, 해양전략연구소)
- 군사혁신을 통한 공군의 발전방향 (공군 대령 심우섭, 공군 RMA기획단 실장)

항공우주 무기체계 세미나 (제3분과)

- 극초음속 항공우주 무기체계를 위한 미래의 추진기관 (이기영, 공군사관학교 기계공학과 부교수)
- 미국 다기능 Joint Strike Fighter와 한국형 군용/민간용 /다목적 항공기 개발전략



전시장 내부 모습

- (이동호,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)
- 미래전에 대비한 고에너지 레이저무기체계 발
전방향 (김제기,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)
- Flight Simulator Systems Engineering (Edward
kulakowsk, Evans & Sutherland Director)
- 우주폐기물이 우주 및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
(김원규 교수, 경희대학교 우주학과)
- 디지털 고주파 기억장치를 이용한 협대역 잡음
재밍신호 발생에 관한 연구
(조용상 책임연구원/조성진 연구원,
국방과학연구소)
- 항공우주기술 촉진에 대하여
(이덕주,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학과 책임교수)
- 다용도 고효용의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
(최기영, 인하대학교 교수)
- 21C 한국군 무기체계의 독자성 확보 방안
(공군 대령 박영수, 공군 전발단 무기체계실)
- 한국 방위산업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
(정청식, 국방부 획득실 항공기개발담당 서기관)
- X-34 우주비행기와 공군력 (채연석, 한국항공
우주연구소 과학로켓 사업단장)
- Research, Development and Cooperation
:A Strong Involvement of Dassault Aviation for
Future Development (Gerard PUIRIER, Dassault
International)
- 인공위성 추적·감시
(최규홍,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)
- Design of the Eurofighter Human Machine
Interface (Chris J. Smith, Eurofighter International)
- 국가우주개발과 공군의 역할 (공군 중령 김호
식, 공군 전투발전단 우주 무기 계획 장교)
- Green Pine ATBM Early Warning System
(Sala Holzstein, IAI/ELTA)
- Helicopter with Co-axial Rotor System
(Dr. Serguei V. Mikheev, Kamov Company)
- F-110 Propulsion Technology
(Jeffrey M. Reno, GE Aircraft Engines)
- Trends in Modern CAISR Systems

- (Robert E. Hendrix, Northrop Grumman)
- 전자전용 고출력 전자파 발생장치의 연구개발
과 전망 (박전식,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)
- Integrated Electronic Warfare Trainers
(P. Michael Gale, Telemus Inc.)
- 무인항공기의 공군전력화를 위한 기술적 고찰
(권태환, 국방대학교 교수)
- F-16 Weapon Pylon Upgrades with Chaff/Flare
Dispensers and Missile Warning
(John Ryaard, TERMAR)
- Surface to Air Missile Operation Centre
(Mr. Freimeyer, EADS)
- 펄스도플러 레이더와 대응 제밍기법
(이광일, 국과연 전자전체계부 팀장)



무기체계 전시회는 국·내외 총 10개 업체가 참여 하였다.

전시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, LG 이노텍, 쌍용정보통신과 국방과학연구소, 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업체 및 연구소 등이 참가 하였고 Northrop Grumman, EADS, Dassault Aviation, Eurofighter 등 선진 무기체계 업체 등도 참가하여 최신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.

주요 전시 제품 분야는 Electronic Warfare Systems, Airbone Early Warning & Command Systems, MCRC & KNTDS, Missile Launch Detector, Towed Decoy, EW-suite, 3D Radar, FDC(Field Deployable Communications) 2 way radio, Groundstation, Reconnaissance cameras 등이 전시되었다. ☺